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6월 14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 당 자 • 구미국제기구팀장 김희연 ☎440-3241 • 담당자 임나현 ☎440-323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방인, “바이오·스마트시티 등 전략산업 협력할 것”**  
 - 유럽의 관문도시 라트비아,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과 협력 희망 -  
 - 투자개발청장 일행 방인으로 전략적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

인천광역시는 라트비아와의 구체적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라트비아 투자개발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4일 라트비아 카스파르스 로즈칼른즈 투자개발청장, 마틴시 바우마니스 투자개발청 한국대표, 페테리스 포드빈스키스 주한 라트비아대사관 참사관이 인천을 방문해 상호 도시 전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발트 3국 중 한가운데에 자리한 라트비아는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 우수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유럽 국가다.

라트비아는 **정보기술** 분야 선진국가로, 5G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도인 리가시의 대학과 연계해 스마트시티 등 혁신적인 디지털 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바이오, 스마트시티, 항공모빌리티, 스타트업 등 인천형 전략산업 분야에 있어 라트비아와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5월에는 마틴시 대표가 방인해 교류 협력을 약속한데 이어, 이번 라트비아 투자개발청장의 방문으로 양 도시간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전망이다.

라트비아의 카스파르스 투자개발청장은 “라트비아는 바이오 및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천의 차별화된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등 여러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 양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했으며,

이에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스마트시티를 아울러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기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천과 리가시의 우호증진을 희망한다” 고 말했다.

이날 면담 이후 라트비아 일행은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동해 홍보관과 스마트시티 운영센터를 둘러봤다. 인천시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한 인천형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 최초의 민관 협력 스타트업파크 등 고도화된 사업 모델을 보유해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라트비아 투자개발청은 라트비아의 무역, 투자, 수출 진흥, 관광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외 지자체 및 협회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사무소는 2020년 서울에서 개소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